

# 南宋 遺民詩에 나타난 悲壯美 연구\*

노 상 균  
(경희대학교)

## 국문초록

문학이란 본래 시대적 산물로서, 특수한 환경은 특수한 작가군 및 특수한 사상정감을 낳는다. 남송 말기는 國破家亡적인 특수한 시대로서, 이로 인해 문천상을 필두로 한 격양강개를 위주로 하는 작가군을 낳았다. 이들은 孔孟의 “殺身成仁” 및 “捨生取義” 사상을 가슴에 품고서 망국에 대한 비통함과 개인적 울분을 시편에 거침없이 쏟아부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비장함과 충의로움이 가득한 남송 유민시인들의 대표적인 작품을 크게 亡國之恨, 忠烈之節, 無奈之嘆의 세 분류로 나누어 자세히 분석 고찰하였다.

이들의 작품은 주로 감각적인 언어사용과 直陳白描적인 표현수법으로 충의로운 호연정기와 격양강개한 비장미를 거침없이 쏟아냄으로서 후대 지인열사들에게 자랑스러운 전고와 모범이 되었을 뿐 아니라, 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무한한 비애감과 가슴 저리는 감동을 느끼게 해준다.

---

주제어

남송유민시, 비장미, 망국지한, 문천상, 정사초, 왕원량, 임경희

---

\* 이 연구는 2006년도 경희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 (KHU-20060511)

## 1. 序言

중국고대시학에 있어서, 孔子가 <關雎>시를 “樂而不淫, 哀而不傷”으로 평하고 漢儒들이 이를 본받아 “溫柔敦厚, 詩教也.” “發乎情, 止乎禮義”를 표방한 이래로 중국 고대 시가는 감정의 지나친 표현을 지양하고 은유돈후한 감정의 절제와 함축온자한 표현방식을 최고의 미학으로 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불우한 처경이나 정치 사회적으로 이른바 “懷才不遇”의 처지에 놓여있던 시인들은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개인적 울분이나 비애감을 시로서 토로하였고 이러한 眞情實感에서 나온 작품들을 후대 평자들은 명작이라 평가해왔다. 이는 굴원의 “發憤而抒情”이나 사마천의 “發憤著書”, 그리고 한유의 “不平則鳴”, 구양수의 “愈窮則愈工”설 등이 그 이론적 토대를 형성해왔고, 평시자들은 “淒婉, 惆悵, 悲憤, 悲涼, 悲壯”등의 평어를 사용하여 이들의 작품을 개괄해왔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비애의 미학 중에서 특히 조국의 멸망 및 문화적으로 열등한 이민족의 통치하에서 개인적 울분과 국가와 민족의 중흥을 소리높여 외쳤던 남송 말기 유민들의 시속에 일관되어 있는 “悲壯”美를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그 미학적 의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일찍이 司空圖는 二十四詩品 중 하나로 “悲慨”를 설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 바 있다.

大風捲水, 林木爲摧.	大風이 강물 말아올리고, 林木들이 이로 인해 꺾이노라.
意苦若死, 招憇不來.	마음속 괴로워 죽을 것 같은데, 휴식처 애타게 불러도 오지를 않네.
.....	
壯士拂劍, 泫然彌哀.	장사는 검 닦다가 눈물 흘리며 더욱 슬픔에 잠기네.
蕭蕭落葉, 漏雨蒼苔.	우수수 낙엽만이 쌓여가고, 새는 빗물에 푸른 이끼만 생겨날 뿐.

남송 말기의 역사적 상황은 바로 “大風捲水, 林木爲摧”와 같이 흉맹한 몽고

군에 의해 전 국토가 산산이 꺾이고 유린되었으며, 이로 인해 당시의 충의지사들은 “意苦若死, 招魂不來”처럼 가슴 속 가득 비통함과 울분을 품고 살면서, “壯士拂劍, 泫然彌哀”처럼 망해가는 국가의 중흥을 위해 온 몸으로 분투 노력하였으나 끝내 망해버린 조국 대승에 대한 비통함과 비장한 각오를 시속에 남김없이 토로하였다.

대표적인 시인으로는 조국의 중흥을 위해 목숨 바쳐 분투한 文天祥과 비록 초야에서 묻혀 살았으나 그 누구보다도 망국 상황에 비분강개하고 憂國愛民했던 鄭思肖, 謝翱, 林景熙, 汪元量 등이 있는데, 이들의 작품이 비록 “亡國之音 哀以思”이기는 하나 흥맹한 이족의 강압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망국의 한과 울분을 소리높여 외침으로서 사그러가는 민족적 정기에 다시금 불을 활 활 붙였으며, 激昂慷慨적인 悲壯美를 창조함으로써 중국시가사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겼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이 남긴 많은 시편들 중 激昂慷慨적인 悲壯美가 돋보이는 작품을 위주로 하여 그 주제사상별로 크게 “亡國之恨” “忠烈之節” 그리고 “無奈之嘆”의 세 분류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II. 亡國之恨

서기 1127년 금나라 태종에 의해 송의 수도 汴京이 함락되고 徽宗 欽宗 두 황제는 금의 수도 燕京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이로써 북송은 멸망하게 되고, 휘종의 아홉째 아들인 康王 趙構가 남경 應天府로 달아나 高宗이라 칭제하니 이로부터 南宋이 시작된다. 그후 1238년 다시 항주로 쫓겨와 이곳을 臨安府라 칭하고 수도로 삼아 동남지역에서 잠시 안정을 취한다. 그러나 고종으로부터 남송은 九祖 150년에 걸쳐 유지되었으나, 역대 황제들은 국가의 중흥에는 관심이 없고 어쩔바득 정권만을 유지하기 위해 충의지사들은 내치고 기회주의적인 주화파들인 秦檜, 韓侂胄, 史彌遠, 賈似道 등의 간상들을 차례로 등용함으로써 국운은 날로 기울게 된다.

결국 1276년 宋 恭帝 德祐 3년(元 世祖 至元 13년)에 몽고군에 의해 수도 臨安이 함락되고 황제는 몽고에 항복하여 삼궁(황제, 謝태황태후, 竇태후)이 원

의 수도 大都로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이 발생한다. 그 후 張世傑, 陸秀夫, 文天祥, 陳宜中 등 잔여세력이 광동성 福州로 달아나 益王 趙昀을 황제로 옹립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저항하였으나, 1279년 2월 廣東省 新會의 厓山에서 마지막 결전을 벌이다 패배하여 陸秀夫가 남송 마지막 황제 帝昀을 등에 업고서 바다로 뛰어들어 자살함으로써 남송은 완전히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버린 조국 송나라에 대해 이제까지 유가의 충효사상을 행위의 근간으로 삼아왔던 이른바 충의지사들의 마음속에는 조국의 멸망에 대한 비탄과 이민족 몽고에 대한 분노, 문화적 열등민족이라 천시해온 오랑캐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자책과 회한 등이 복합적으로 교차할 수 밖에 없었고, 이들은 이러한 심적 고통을 여과없이 시로 토로하였다. 이러한 충의지사들을 일반적으로 남송 遺民이라 부르는데, 이들 중 흥포한 몽고군에 온몸으로 저항함으로써 꺼져가는 조국 송의 명맥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다가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문천상이 그 대표적 인물이다.

1276년 宋 恭帝가 몽고의 수도 大都로 끌려간 후 문천상은 장세걸 육수부 등과 함께 益王 趙昀을 황제로 옹립하고 몽고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1279년 海豐의 전투에서 몽고의 張洪範에게 결국 포로로 잡혀 大都로 끌려가게 된다. 大都로 북송 도중 문천상은 조국 제2의 수도 金陵(현 南京)에 약 2개월간 머물게 되는데 과거 번화하고 화려했던 금릉이 흥포한 몽고군에 의해 파괴되어 풀만 무성한 황량한 모습을 보고 가슴 저리는 黍離之歎을 느끼게 된다. 다음 <金陵驛> 시에 이러한 그의 비애감을 여실히 묘사하고 있다.

<金陵驛> 2수 중 첫 번째 시

草舍離宮轉夕暉,	잡초 우거진 離宮에 저녁노을 드리우는데,
孤雲飄泊復何依?	외로이 떠도는 저 구름 또 어디에 의지할꼬?
山河風景原無異,	산하 풍경 옛과 다름이 없거늘,
城郭人民半已非.	성내 백성들 반이 이미 스러졌구나.
滿地蘆花和我老	땅에 그득한 갈대꽃 나처럼 스러져가는데,
舊家燕子傍誰飛?	그 옛집 살던 제비 누굴 의지해 날아갈꼬?
從今別却江南路,	지금 이별 후로 강남길 망각할지라도,

化作啼鵑帶血歸. 두견새로 화하여 피 머금고 돌아오리라.

금릉은 과거 남조시대의 수도이자 남송황제 고종이 잠시 머물면서 행궁으로 삼았던 곳으로 변화하고 화려함을 자랑했던 곳이자 조국 송나라를 상징하는 곳이 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은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버린 채 잡초들만 무성해진 황폐한 도시로 변해버렸다. 이러한 참상에 작자는 과거 周 대부가 고국 주나라의 궁실이 서기장으로 뒤덮힌 모습을 목도하고 가슴아픈 비애감에 사로잡혀 그곳을 차마 떠나지 못했던 것과 똑같은 黍離之嘆<sup>1)</sup>을 느낀다. 더구나 작자 자신 역시 사그러져 가는 조국을 보위하기 위해 온몸을 던져 싸우다가 결국은 오랑캐의 포로가 되어 북으로 이송되는 도중이었으니 그 비통함과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첫 구의 “草合離宮”과 “夕暉”은 바로 조국 송나라의 명맥이 사그러져 감을 의미하며, 둘째 구의 “孤雲飄泊”은 의지할 조국을 잃고 북으로 끌려가는 작가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비유한다.

작자의 시야는 이제 하늘에서 대지로 내려온다. 눈에 보이는 산하의 풍경은 옛과 다를 것이 없지만 성안에 살던 백성들은 반 이상이 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거나 막막한 생계를 위해 사망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두보가 읊었던 “國破山河在, 城春草木深”과 같은 처량함과 무상함이 頷聯에 깊게 베어있다. 이러한 비통한 심정의 작자의 눈에 들어온 경물은 땅에 가득 떨어져 말라 비틀어져가는 갈대꽃과, 많은 집들이 황폐해지고 무너져 깃들일 곳을 찾지 못하고 떠도는 제비이다. 물론 이러한 처량한 경물은 바로 불우한 작자와 망해가는 조국의 투영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 시의 要諦는 망국에 대한 黍離之歎이나 개인적 조우의 처량함이 아니라 바로 尾聯에 있다. 이제 이곳 금릉을 떠나 북으로 가면 이 목숨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다. 설사 오랑캐가 회유하려든들 어찌 이 목숨 아꼈소냐. 반드시 죽어서 두견새가 되어 목에서 피를 토할 때까지 망국의 한을 소리높여 울 것이다. 미련에서 느껴지는 이러한 비장감과 가슴을 저미는 아픔이 바로 이 시의 생명이라 하겠다.

忠孝를 근간으로 하는 유가사상이 몸에 밴 忠義之士들에게 있어 조국의 멸망

1) 《詩·王風·黍離序》 참고.

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일처럼 비통하고 한스러운 것은 단연코 없다. 이러한 亡國之痛은 문천상처럼 직접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피를 토하는 비장함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汪元量처럼 수도 臨安이 함락되고 남송의 황제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눈 앞에서 직접 목도하면서 느꼈던 비통함과 울분을 杜甫가 그러하였듯이 은은하지만 절실하게 서사적으로 묘사한 작가도 있는데, 아래 <北征>시가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北征>

北師有嚴程, 挽我投燕京. 몽고 군대 긴박한 여정 있어, 나를 끌어당겨 연경으로 내모네.  
 挾此萬卷書, 明發萬里行. 이 만권의 서적 끼고서, 내일 만리의 길을 떠나야 하네.  
 出門隔山嶽, 未知死與生. 문 나서면 산악으로 격리되니, 앞날의 생사 알 길이 없어라.  
 三宮錦帆張, 粉陣吹鸞笙. 삼궁의 비단돛 펼쳐지니, 궁녀들 진영에서 鸞笙이 구슬피 울리네.  
 遺氓拜路傍, 號哭皆失聲. 유민들 길가에 꿇어 엎드려, 통곡하며 모두 실성했다오.  
 吳山何青青, 吳水何冷冷! 오산은 어찌 그리 푸르디 푸르며, 오수는 어찌 그리 차갑고 냉냉한가!  
 山水豈有極, 天地終無情. 산천이 어찌 그 끝이 있을소냐만, 천지는 끝내 무정하여라.  
 回首叫重華, 蒼梧雲正橫. 머리 돌려 순임금 부르짖으나, 창오엔 마침 구름만이 가로놓였어라.

1276년 6살의 어린 황제 趙昰와 어린 황제를 섭정하던 謝太后 등이 몽고군에 항복하고 북으로 끌려갈 때에 왕원량은 남송 조정의 琴師로서 남송 멸망의 통한의 역사를 가까이서 직접 목도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을 모시고 원의 수도 大都까지 따라간 사람이다. 위의 시는 바로 대도로 떠나기 전날에 쓴 것으로 넷째 구의 “明發萬里行”이 이를 입증해 준다.

이 시의 중심은 제 7구에서 제 10구까지이다. 바로 어린 황제와 謝태황태후

술태후 등 三宮이 무도한 오랑캐에게 함락된 황궁을 떠나야 했던 당일 날의 비통하고 한스러운 장면을 눈에 선하게 묘사하고 있다. 북으로 끌려가기 위해 배에 오르는 어린 황제와 태황태후, 이들을 전송하는 구슬픈 생황소리와 궁녀들의 흐느낌 소리, 더구나 길 양 옆에 무릎꿇은 채 이들을 전송하는 백성들의 실성한 통곡소리가 이 시를 읽는 독자들의 눈과 귀에 선명하게 투영되면서 한없는 비애감과 비장함을 자아내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왕원량의 시는 당시 및 후대의 평자들에 의해 남송의 亡國史라 칭해진다.<sup>2)</sup> 이 <북정>시 외에도 《水雲集》에 수록된 <越州歌>二十首에는 원 승상 伯顏의 대군에 의한 남송 수도 臨安의 함락, 기세등등하게 늘어선 원군의 위세하에 항복하는 어린 황제, 망국으로 인한 悲哀와 恨, 나라를 망친 중신들에 대한 비판 등을 담고 있으며, <湖州家>九十八首에는 三宮을 따라 원의 수도 大都로 가는 도중 주위의 경물로 인해 느끼는 처량감과 고향산천에 대한 그리움을 읊음으로서 이 시들을 죽 이어 놓으면 한편의 장편 서사시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亡國之恨을 묘사한 그의 또 다른 작품을 보자:

<潼關>

蔽日烏雲撥不開,  
昏昏勒馬度關來.  
綠燕逕路人千里,  
黃葉郵亭酒一杯.  
事去空垂悲國淚,  
愁來莫上望鄉臺.  
桃林塞外秋風起,  
大漠天寒鬼哭哀.

먹구름 해 가려 걷혀지지 않아,  
어두컴컴 말 끌고 관을 넘어 왔네.  
푸르른 풀 날 제 떠 나온 길 천리인데,  
누런 낙엽 길 제 여관에서 술 한잔  
지난 일에 하릴없이 망국의 눈물 흐르니,  
근심 올 제 망향대 오르질 마소.  
도림새외에 가을 바람 이니,  
대막의 차거운 날씨에 귀신 울음 애달파라.

이 시는 元 世祖 至元 二十三年(1286년)에 왕원량이 세조의 명을 받고 명산 대천에 제사를 지내러 가던 도중 潼關을 지나며 지은 시이다.

2) 李珣<書汪水雲詩後>云: “吳友汪水雲出示《類稿》, 紀其亡國之戚, 去國之苦, 艱關愁嘆之狀, 備見於詩, ..., 唐之事紀於草堂, 後人以詩史目之, 水雲之詩, 亦宋亡之詩史也.” (《增訂湖山類稿》, 北京中華書局, 1984년)

首聯의 칠혹같은 먹구름에 가린 캄캄한 날씨는 곧 작자의 침중하고 암울한 감정을 대변하고 있고, 頷聯은 봄이 한창일 때 수도 大都를 떠나 스잔히 낙엽지는 늦가을에 도착한 이역땅에서 홀로 여관에 투숙하여 탁주 한잔 기울이는 작자의 개인적인 고독감과 비애감을 읊고 있으며, 이 개인적인 비애감은 頸聯에 이르러 곧바로 지난날 망해버린 조국 남송에 대한 망국의 한을 이끌어내게 된다. 고향이 그리워 망향대에 오르고 싶어도 망해버린 옛 조국이 가져다 주는 가슴 아린 한이 연상되니 그럴 수도 없다. 潼關은 천연의 요새 중 하나로서 전장터의 상징이며, 그만큼 수많은 원혼이 잠든 곳이기도 하다. 과거 조국 송나라를 보위하기 위해 이역만리 머나먼 전장터에서 죽어간 수많은 영령들, 하지만 결국은 조국은 무력하게 망해버리고 영령들만이 아무런 대가없이 차거운 대막의 삭풍 속에서 구슬프게 호곡할 뿐이다. 전체적으로 침울하고 비애감이 감도는 가운데 망해버린 조국 남송에 대한 작자의 가슴앓이가 아련히 베어져 나온다.

상술한 작품들과는 그 소재와 의미가 자못 다른 각도에서 남송 멸망의 한을 노래한 작품이 있는데, 林景熙의 <冬青花>가 바로 그것이다. 冬青樹는 한나라의 궁전 및 송나라 황제들의 능묘에 심은 나무로, 이로 인해 송나라의 황실, 더 나아가서는 송나라를 상징하는 나무이다.

#### <冬青花>

冬青花, 花時一日腸九折.	동청화, 꽃 필땐 하루에도 무수히 애간장 끊어지네.
隔江風雨晴影空,	강 건너 비바람에 맑은 그림자 하나 없고,
五月深山護微雪.	오뉴월 깊은 산속에서 희미한 눈 보호하네.
石根云氣龍所藏,	돌부리에 서린 운기속엔 용이 숨어있어,
尋常螻蟻不敢穴.	땅강아지, 개미같은 미물들 감히 살지 못하네.
移來此種非人間,	이 동청화 황실에서 옮겨와 이식했는 바,
曾識萬年觴底月.	과거 만년 술잔에 비친 달을 알고 있었으리라.
蜀魂飛繞百鳥臣,	望帝(두견)가 날아와 百鳥臣을 빙 둘러보다,
夜半一聲山竹裂.	심야의 일성 號哭에 산 대나무 파열되네.

이 시에는 남송의 비운적인 고사가 깔려있다. 원 세조 至元 22년(1285년)에 泰寧寺의 중 宗允과 宗愷가 송 황실의 능묘를 도굴하다가 능묘를 지키는 사람



에게 고발되자 두 중이 당시 강남의 浮屠를 총괄하던 몽고승 楊璉眞珈에게 능에 귀중한 보물이 가득하다고 유혹했고, 이로부터 삼인이 주축이 되어 寧宗, 楊后, 理宗, 度宗의 능묘를 도굴한데 이어 같은 해 孟后, 徽宗, 高宗, 吳后, 孝宗, 謝后, 光宗 등의 능묘를 차례로 도굴하여 보물을 모두 절취하고 유체를 마구 훼손한 채로 풀숲에 버린 사건이 있었다.<sup>3)</sup>

당시 임경희는 이 사건에 격분하여 위협을 무릅쓰고 녁마주이로 가장하여 들어가 銀牌로 그곳을 지키던 중을 회유하여 고종과 효종의 유골을 찾아내 會稽의 蘭渚山에 장사지내고, 송대의 常朝殿에서 동청수를 발굴해와 분묘위에 심었다.<sup>4)</sup> <冬青花>시는 바로 이러한 비운의 역사적 배경하에 탄생하였다. 망해버린 조국 대송 황제들의 유골들 위에 피어난 동청화를 바라보는 작자의 가슴은 망국의 한과 비통함으로 간장이 끊어진다. 이 때 작자의 시아에는 저 전당강 너머로 臨安의 모습이 들어온다. 임안은 바로 남송의 수도로서 이미 오랑캐 몽고군에 의해 폐허로 변한 곳이다. 저 강 너머로 폐허로 변한 남송의 수도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서 훼손된 망국의 황제들의 유골을 모아놓고 제사를 지내는 작자의 가슴은 깊은 비애감과 회한 분노 등 만감이 교차한다. 가슴이 에이는 비통한 가운데 남송 황제들의 유골 위에 피어난 동청화를 보며 작자는 과거 한 때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시절을 잠시나마 아련히 떠올리는데, 바로 그 순간 피를 토하듯 울어제끼는 두견새의 號哭소리에 마치 대나무가 갈라지듯 다시금 가슴이 찢어지는 비통함에 몸서리친다.

말구의 “蜀魂”은 두견새를 의미한다. 남조시대 송 鮑照는 <擬行路難>시에서 “蜀魂”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中有一鳥名杜鵑，言是古時蜀帝魂。其聲哀苦鳴不息，羽毛憔悴似人髡”(가운데 새 한 마리 두견이라 부르는데, 말하기를 그 옛날 촉제의 혼이라네. 그 울음소리 애달프고 고달픈데 울어 그치지 않고,

3) 周密, 《癸辛雜識續集》楊髡發陵조 참고

4) 도굴된 황제와 황후의 유골을 수습하여 장사지낸 충의지사에 대해 제서의 기록이 각각 다르다. 鄭元祐는 林景熙, 羅有開는 唐珣, 周密은 羅銑이라 주장하는데, 陶宗儀로부터 張丁, 孔希普 그리고 《四庫提要》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견해는 임경희와 당각 이인이 협력하여 한 일이라 여기고 있다. 한편 황종희는 <冬靑引註>에서 주장하기를: 당시 山陰人 王英孫은 부유하여 식객을 좋아했는데, 임경희와 당각이 그의 식객으로 있었으니 王이 주가 되고 林과 唐이 그의 좌우가 되어 행한 일이라 주장한다.

깃털은 초췌하여 마치 머리털 빠진 사람같네.) 이처럼 너무나 애달픈 울음소리로 유명한 두견새는 바로 축제의 혼이 화한 것으로, 이 시에서는 물론 나라를 오랑캐에 빼앗기고 유골마저 거리에 나뒹굴게 된 비참한 남송 황제들을 상징한다. 시 전체적으로 망국에 대한 비통함과 참담함이 가득한 가운데 망해버린 조국 및 황제에 대한 충의로움이 은은히 흐르고 있다.

### III. 忠烈之節

일찍이 공자가 “歲寒, 然後知松柏之後彫”라 설과했듯이,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진정한 충의지사들이 나타나서 국가의 위기나 멸망에 소리높여 울분을 토로하거나 피를 토하는 비장한 각오를 다짐하였다. 屈原의 <離騷>로부터 서진 劉琨의 <重贈盧諶>시, 남송 陸游의 <示兒>, 辛棄疾의 <京口北固亭懷古>(永遇樂)詞 등이 모두 이러한 충의로운 애국열정이 가득 담긴 대표적인 작품들인데, 남송의 멸망시기에 이러한 애국적 열정과 장렬한 비장미를 대표하는 작품이 바로 문천상의 <正氣歌>이다.

#### <正氣歌>

天地有正氣, 雜然賦流形. 천지 가득 올바른 기운 있으니, 엷섞여 온갖 형체  
 빛어냈네.  
 下則爲河嶽, 上則爲日星. 땅에서는 강과 산이 되고, 하늘에서는 해와 별이  
 되었네.  
 於人曰浩然, 沛乎塞蒼冥. 사람에게서는 浩然이라 이름하였는바, 허공 중에  
 가득 차 있도다.  
 皇路當清夷, 含和吐明庭. 왕도가 맑고 평탄할 땐, 조화로움 머금어 밝은 조  
 정에 토해냈고.  
 時窮節乃見, 一一垂丹青. 시대가 곤궁할 땐 그 절개 드러나서, 일일이 역사  
 에 드리웠어라.  
 在齊太史簡, 在晉董狐筆. 齊에서는 태사의 죽간으로<sup>5)</sup>, 晉에서는 동호의 붓  
 으로,<sup>6)</sup>

在秦張良椎, 在漢蘇武節. 秦에서는 장량의 철추로<sup>7)</sup>, 漢에서는 소무의 절개로 드러났고,  
 爲嚴將軍頭, 爲稽侍中血. 嚴顏장군의 머리가 되었는데<sup>8)</sup> 稽紹의 피가 되기도 했고,  
 爲張睢陽齒, 爲顏常山舌. 張巡의 신랄한 이로 화하기도 했고 顏杲卿<sup>9)</sup>의 통렬한 혀로도 현신했다네.  
 或爲遼東帽, 清操厲冰雪. 혹은 요동의 모자가 되어 그 맑은 지조가 빙설을 능가하고,<sup>10)</sup>  
 或爲出師表, 鬼神泣壯烈. 혹은 출사표가 되니 귀신도 그 장렬함에 흐느끼고<sup>11)</sup>  
 或爲渡江楫, 慷慨吞胡羯. 혹은 강 건너는 노가 되니 그 비분강개함이 오랑캐 삼켜버리고,<sup>12)</sup>  
 或爲擊敵笏, 逆豎頭破裂. 혹은 역적 치는 상아홀이 되어 역적의 머리 깨뜨렸도다.<sup>13)</sup>

是氣所旁薄, 凜冽萬古存. 이 정기 천지에 충만하여 추상과 같이 만고에 존

- 
- 5) 《左傳·襄公·二十五年》참고
  - 6) 《左傳·宣公·二年》참고
  - 7) 司馬遷, 《史記·留侯世家》참고
  - 8) 동한말 嚴顏이 장비에게 잡혀 포로가 되어 항복을 권유받았을 때 엄안은 “우리 州에는 오직 斷頭將軍이 있을 뿐 降將軍은 없다.”라 하며 목숨을 걸고 거절한 고사. (《三國志·蜀志·張飛傳》참고)
  - 9) 顏杲卿은 唐代 安祿山이 亂을 일으켰을 때 常山태수로서 군대를 일으켜 안록산에게 끝까지 저항하다 잡혔는데, 안록산에게 통렬하게 욕을 퍼붓다가 혀를 찢어 죽임을 당했다. (《唐書》一百三十七, 《新唐書》一百九十二, 《新唐書·忠義·顏杲卿傳》참고.)
  - 10) 삼국 鼎立 시대 魏의 管寧은 난을 피해 저 먼 요동 땅으로 와서 살면서 항상 검은 모자를 쓰고 벼슬을 입고 살면서 공명을 거절하고 청빈한 생활을 즐겼다. (《三國志·魏志·管寧傳》참고)
  - 11) 《三國志·蜀志·諸葛亮傳》참고
  - 12) 晉의 祖逖이 원제에게 북벌을 주청하여 奮威將軍 겸 豫州刺史로 임명되어 장강을 건너면서 노로 강물을 치면서 죽음으로서 중원을 되찾을 것을 맹세한 고사. 《晉書·列傳第三十二·祖逖傳》참고.
  - 13) 당대 段秀實이 반역자 朱泚의 회유에 집짓 응한 척 하다가 틈을 보아 상아홀을 빼앗아 朱泚의 머리를 내리쳐 선혈이 낭자하게 만들고 해를 당한 고사. (《唐書》一百五十三, 《舊唐書》一百二十八 참고)

재하네

當其貫日月, 生死安足論. 이 정기 해와 달을 관통할 제, 살고 죽음 어찌 구  
구하게 따지리오!

地維賴以立, 天柱賴以尊. 대지가 이에 의지해 우뚝 서고, 천주가 이로 말미  
암아 드높나니!

三綱實係命, 道義爲之根. 삼강이 실로 이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도의가 이  
로 인해 뿌리내리노라 .

.....

顧此耿耿在, 仰視浮雲白. 다만 이 추상같은 정기 가슴에 간직할 뿐...고개  
들어 보니 흰 구름 더없이 깨끗하다.

悠悠我心悲, 蒼天曷有極. 깊고도 깊도다 내 마음속의 비애감이여, 저 푸른  
하늘같이 어찌 그 끝이 있겠는가?

哲人日已遠, 典型在夙昔. 옛 철인들 날로 멀어지나, 후세에 드리운 모범 내  
가슴에 영원하리니,

風簾展書讀, 古道照顏色. 바람부는 처마 밑 책 펼쳐 독서하니, 옛 성현의 도  
리 얼굴 가득 비추네.

이 시는 문천상이 몽고군에 포로로 잡혀 원의 수도 大都의 감옥에 갇혀있으면  
서 지은 시이다. 그의 서문에 의하면, 열악한 감옥환경으로 인해 겪은 일곱 가지  
의 惡氣, 즉 땅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음습한 기운, 밀집된 수인들 몸에서 나는  
땀비린내, 시체나 동물 썩는 냄새, 폭폭 찌는 열기, 매캐한 곰팡이 냄새 등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질병없이 살아있는 단 한가지 이유는 바로 자신이  
浩然正氣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천하의 정기로서 다른 모든 惡氣를 능히  
물리칠 수 있었음을 깨달아 이 시를 지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의 전편에 흐르는 주제사상은 浩然正氣이다. 작자는 이 浩然正  
氣를 주축으로 삼아 국가의 존망의 위기에서 목숨을 버리고 충의로움을 다했던  
역대 志人烈士들의 계보를 세상에 널리 천명하였다. 韓愈가 <原道>에서 유가  
의 도통을 세우고 은연중 자신이 그 도통을 잇기를 바랬다면, 문천상은 이 <正氣  
歌>를 지어서 志士의 전통을 세우고 자신 역시 이 志士의 계보를 이을 것을  
다짐했다고 말할 수 있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반드시 그 옛 志人烈士들처럼 충의로움을 다하

겠다는 일념 하나로 온갖 악기를 물리치고 버텨온 그 지독한 의지와 망해버린 조국에 대한 비장감 넘치는 충의로움은 이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심장이 조여 오는 듯한 비통함과 함께 가슴속에서 용솨음치는 뜨거운 감동을 경험하게 해준다. 개인의 행복추구가 보편적 정서가 되어버린 현대에 있어 도대체 조국이 무엇이며 충의가 무슨 물건이길래 인간이 저리도 외골수가 될 수 있는가? 하지만 비탄하기에는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정신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귀하다. 그는 분명 인류가 남긴 수많은 전형적인 정서 중에 悲壯美라는 감동적인 또 하나의 전형적인 정서를 창조해냈다고 하겠다.

문천상의 다음 詩 역시 살아있는 호연정기를 유감없이 보여준 대표적 작품이다.

<過零丁洋>

辛苦遭逢起一經,  
干戈寥落四周星  
山河破碎風飄絮  
身世浮沉雨打萍  
惶恐灘頭說惶恐  
零丁洋裡嘆零丁.  
人生自古誰無死,  
留取丹心照汗青.

고생 끝에 성은 입고 경전 하나로 일어나,  
전쟁으로 지센 사개 성상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네.  
고국산천 부서져 바람에 흩날리는 솜 같고,  
이 내 신세 뜨고 짐이 비 맞은 부평초 같다.  
惶恐灘에서 위급하고 황망함 외쳤더니,  
零丁洋에서 외롭고 고독함 탄식하네.  
예로부터 그 누가 죽지 않을 수 있는가?  
다만 이 붉은 심장 남겨 역사를 비추리라.

남송의 마지막 황제 帝昺 祥興 元年(1278년) 十二月에 文天祥은 廣東 海豐 五坡嶺에서 몽고군에게 패해 포로가 된다. 다음 해에 그는 원의 수도 大都로 호송되었고, 도중 零丁洋을 지나게 되는데 당시 몽고의 원수 張洪範이 당시 끝까지 저항하던 張世傑에게 항복을 권유하라고 꾀박하자 이에 대한 회답으로 지은 시이다.

어려서부터 유가 경전의 훈도를 받아 살신성인의 애국정신을 배양했으나 태평 앞의 등불같은 조국을 구하기 위해 4년간 전장터에서 온갖 고생을 겪은 끝에 결국은 포로신세로 전락해 버린 한탄을 묘사했는데, 全篇에 “國破山河碎”적 망국의 한과 이러한 망국상황 하에서 받게 되는 위급함과 황망함, 처량함, 고독감이 물씬 배어져 나온다. 그러나 설사 포로가 되었다 한들 자신은 본래부터 살신성인

의 가르침을 받아온 몸 어찌 죽음 따위를 두려워할소냐! 오직 이 우국애민에 불타는 심장 영원히 남겨서 죽은 후에도 조국의 중흥을 위한 불빛이 될 것을 다짐한다. 末句의 “留取丹心照汗青”은 바로 그가 <正氣歌>에서 나열해 놓았던 전대 열사들의 浩然正氣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며, 후대의 지인열사들에게 한줄기 광명의 빛을 남겨놓은 것이다.

조국 남송의 멸망에 그 누구보다 비분강개하고 대쪽같은 절개를 여실히 보여준 시인으로 鄭思肖<sup>14)</sup>가 있다. 그는 조국 남송이 멸망당한 후 이름을 思肖<sup>15)</sup>라 개명하고 호를 所南<sup>16)</sup>이라 할 만큼 누구보다 북쪽 오랑캐 몽고를 증오하고 조국 대송의 부흥을 갈망한 시인이다.

그는 외골수에 가까울 만큼 유가사상에 경도된 사람이었지만, 그의 시는 유가의 전통적 비홍수법은 일부러 피하고<sup>17)</sup> 주로 직설적이고 감각적인 언어의 사용을 통해 고통과 울분을 여과없이 마구 분출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래 <勵志>시를 감상해 보자:

<勵志>

大哉天地經, 森然不可踰. 위대하도다 천지의 영원한 상도여, 삼엄하여 어길 수 없네.

14) 정사초의 생평 사적에 대해서, 원대에 編修한 《宋史》는 물론 명대 宋濂 등이 편수한 《元史》에도 그의 전기가 없다. 다만 청말에 나온 《新元史》隱逸列傳에 간단하나 그의 전기가 보이며, 비교적 자세한 자료는 清代 林佶의 水鈔本 《三山鄭菊山先生清雋集附所男先生詩文集》補遺 중에 들어있는 <鄭所南小傳>이다. 그 외에, 정소남에 대한 자료는 元 王逢의 <梧溪集>, 明 王鏊의 <姑蘇志>, 明 盧熊의 <蘇州府志>, 明 夏元彦의 <圖繪寶鑑>, 明 陶宗儀의 <輟耕錄>, 明 張國維의 <心史序>, 清 厲樊榭의 <宋詩記事>, 清 彭蘊璈의 <歷代畫史彙傳> 등 諸書에 단편적으로 보인다.

15) 思肖란 思趙, 즉 趙氏를 그리워한다, 다시 말하면 조국인 宋나라를 그리워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6) 그의 성격이 워낙 강개하여 북쪽(즉, 胡元을 의미)은 보려고 하지도 않고 항상 남쪽에만 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號를 所南이라 하였다.

17) 정사초는 <題拙作後>이란 詩에서 “다만 폐부 속 고통을 묘사할 뿐, 말이 기묘함을 구하지 않네. 맹세하며 분기 토해낼 뿐, 어찌 시인지 아닌지를 알겠는가?(但寫肺腑苦, 不求言語奇. 矢口吐憤氣, 焉知詩非詩?)”라 하여 그의 작시태도를 밝힌 바 있다.

聖人治天下, 綱常安厥居. 성인이 천하를 다스림에 삼강 오상으로 이 거처  
평온하였더니,  
誰謂遭大變, 干戈血模糊. 누가 큰 변을 만났다 했는가? 전쟁으로 피범벅이  
되었도다.  
天地忽破碎, 虎狼穴吾廬. 천지가 홀연히 깨지고 부서지니, 호랑이 승냥이들  
내 거처에서 서식하고,  
毒氣擊萬物, 草木俱焦枯. 독기가 만물을 뒤덮으니, 초목이 모두 그을리고  
말라비틀어졌다.  
我爲國之臣, 於義當捐軀. 나는 나라의 신하로서, 응당 목숨 바쳐야 하거늘  
受死不爲痛, 國家終何如? 죽음을 받음은 아프지 않으나 나라는 결국 어찌될  
것인가?  
念此迫我心, 萬劍裂肌膚. 이를 생각하면 내 마음 조금해지며 만 검이 피부  
갈래갈래 찢어놓네  
骨腐尙啣冤, 且爲國家圖. 뼈가 썩어 없어져도 여전히 원한을 머금고, 오직  
나라를 위해 도모하리니  
鬼神果有知, 聞之亦歔歔. 귀신이 진정 지각이 있거든 들으면 또한 후 후 후  
느껴 울리라.

천지에 가득한 영원불멸의 도는 아무리 호랑이 승냥이처럼 사나운 오랑캐가 날뛰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어길 수 없다. 그가 말하는 이 “天地經”이란 바로 文天祥이 소리높여 외쳤던 “正氣”에 해당하며 이는 곧 大宋의 道이자 大宋의 正氣를 의미한다. 바로 나라를 위해서는 죽음도 추호도 두렵지 않는 이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天地經”은 영원하며 이에 따라 대송 또한 영원하다.

시의 후반부로 갈수록 저 폐부 속 깊숙한 곳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망국의 고통과 분기가 마구 분출된다. 조국 대송은 이미 승냥이같이 잔혹한 오랑캐에 의해 천지가 깨어지고 초목마저 모두 말라 비틀어져 버렸다. 이러한 망국적 상황을 생각하면 온 몸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질만큼 비통하고 분통하다. 그러나 그는 죽어서 원혼이 되어서라도 결국은 조국을 되찾고야 말겠다고 맹세하면서 이 맹세가 혹여나 약화되거나 소멸되지 않도록 이 의기를 갈고 또 간다. 그래서 정사초의 시집에는 “勵” 혹은 “礪”로서 제목을 단 시가 <勵志> 및 <一礪>로부터 시작하여 <二十礪五百字>18)에 이르기까지 무려 43수나 된다.

<一礪>에서는 “血汗衣冠國，冤浮盜賊區。”(피가 문명국을 적시고, 원혼이 도적 지역에서 떠도네.)라 하여 살아 있을 때나 죽고 난 후나 시종여일 목숨 바쳐 망국의 원수를 갚겠다는 의지를 되새겼고, <四礪>之二에서는 “毒露沾膚爛，尖風破骨寒，願身化作劍，飛去斬樓蘭。”(독 이슬 피부 적셔 문드러지고, 예이는 한풍에 뼈 부서져 부들부들 떨어도, 원컨대 이 내 몸 칼로 변해 날아가 오랑캐 무리 참수하리라.)라 하여 서슬퍼런 독기를 마구 내뿜었으며, <八礪>에서는 “萬刀攢身終莫變，一誠銘骨豈能忘?”(만 갈래 칼날 한 몸에 집중된 들 끝내 변함 이 없고, 오직 하나뿐인 이 충정 뼈에 새겨 어찌 잊을 소냐.)라 하여 다시금 조국 대송에 대한 충정과 절개는 천만번 고쳐 죽어도 변함없이 영원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三礪>에서는 “一礪二礪至萬礪，盟執牛耳血爲誓... 皆裂齒碎志懇懇，貉之天性寧踰汶。”(갈고 또 갈고 일만번 갈고 닦아, 결맹하여 소귀 잡고 피로서 맹세하네... 눈흘겨 찢어지고 이 갈아 부서지도록 이 의기 간절하니, 오랑캐가 천성상 어찌汶水를 넘을 수 있겠는가?)라 했다. 이러한 시구들에는 서슬 퍼런 독기와 가슴 아픈 비장미가 가득 담겨있다. 죽어 원귀가 되어서라도 조국 대송의 중흥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이러한 의지는 공자의 “知其不可而爲之”적인 굳은 의지에서 나온 것이지만 망국이라는 특수한 시대상황이 충의지사 鄭思肖를 이같은 극단으로까지 몰고 가게 한 것이다.

조국이 망국이라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직접 온몸으로 저항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충의지사들은 온몸으로 저항하다가 포로가 된 후, 원 세조가 재상이라는 최고의 직위로 회유하였으나 이를 단연코 거절한 뒤 의연하게 목숨을 버린 文天祥에 대해 가슴 가득한 흠모의 정과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 수 없다. 林景熙는 항상 동향인 鄭樸翁과 함께 국난을 당해 나라를 위해 죽지 못하고 군주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고 부끄럽게 여길만큼 충의로운 인물이었던 관계로 나라를 위해 분연히 싸우다가 기꺼이 목숨을 바친 문천상의 충의로운 美行을 누구보다도 더 찬미하고 안타깝게 여겼다. 다음의 시가 이를 여실히 말해 준다.

<讀文山集詩>

18) <勵志>二首는 《心史》<中興甲集>에, 그 외는 모두 <中興乙集>에 모아져 있다.



黑風夜撼天柱折,  
萬里風塵九溟竭.  
雖欲扶之兩腕絕,  
英淚浪浪滿襟血.  
龍庭戈鋌爛如雪,  
孤臣生死早已決.  
綱常萬古懸日月,  
百年身世輕一髮.  
苦寒尚握蘇武節,  
垂盡猶存杲卿舌.  
膝不可下頭可截,  
白石不照吾忠節.  
哀鴻上訴天欲裂,  
一編千載虹光發.  
書生倚劒歌激烈,  
萬壑松聲助幽咽.  
世間淚灑兒女別,  
大丈夫心一寸鐵.

검은 바람 야밤에 몰아닥쳐 천주 끊어지고,  
만리 풍진에 구멍이 고갈되어 버렸다.  
부축해 일으키고 싶으나 두 팔 다 끊어져,  
영웅의 뜨거운 피눈물만 그렇그렇 옷깃 가득하다.  
조정의 창칼 눈처럼 문들어져 있으니,  
외로운 충신의 생사는 결정된 지 이미 오래전.  
윤리강상은 만고에 일월처럼 드리웠거늘,  
백년도 안되는 이 내 신세 가뭇기가 머리카락 한 올 같다.  
괴롭고 추위도 여전히 소무의 절개 움켜쥐고,  
뼈와 살 다한들 여전히 안고경의 혀 간직하리.  
머리가 잘리어 망정 무릎은 꿇을 수 없나니,  
백석인들 내 충절 비출 수 있으랴.  
슬피 우는 기러기 하소연에 하늘도 슬피 찢기울 듯,  
한 무리 천고의 무지개 빛 비추네.  
서생은 검에 기댄채 격렬한 노래 부르고,  
온 골짜기 소나무 소리 유계의 흐느낌 더해 주네.  
세간엔 아녀자 이별로 눈물 뿌리지만,  
대장부 마음은 한 촛의 강철같이 견고하네.

시의 제목대로 이 시는 林景熙가 文天祥의 시집을 읽고 나서 쓴 시이다. 문천상은 元 世祖 至正 16년(1279년)에 海豐의 전투에서 패하여 포로가 되어 원의 수도 大都로 끌려온 뒤 3년 뒤인 1282년에 결국 충의로운 죽음을 맞이하였다. 첫 두구의 “黑風”과 “風塵”은 몽고군을, “天柱”와 “九溟”은 대송 천하를 비유한 시어이며, 그러므로 잔혹한 몽고군에 의해 조국 대송이 무너져버린 데 대한 분개함을 묘사하였고, 제3, 4구는 망해가는 조국을 구하기 위해 온몸으로 분투한 문천상의 충의로움을 노래했다. 이어서 제 5, 6구는 망해가는 조국을 부흥시킬 힘이 전무한 무능하고 부패한 조정에 대한 분노와 이로 인해 홀홀단신으로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온 힘과 정력을 다 쏟았으나 죽음이 운명지워져 버린 외로운 충신 문천상에 대한 안타까움을 묘사하였다.

후반부에서는 문천상이 원 세조의 위협과 회유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의연히 죽음을 택했던 역사적 義擧를 장장 십구년간을 죽음의 대막 땅에 잠혀있으면서

도 절개를 굽히지 않았던 蘇武와 온몸의 살이 잘리워나가는 극도의 고통속에서도 안록산을 통렬하게 욕했던 顏杲卿의 충절에 비유하는 한편, 그의 비장한 죽음에 하늘도 슬퍼하고 이미 죽어 골짜기에 버려진 원혼들마저 슬피 통곡한다고 묘사함으로써 문천상의 장렬한 죽음에 대한 억장이 무너지는 비통함을 토로하였다. 문천상의 충렬을 목이 터져라 노래하고 그의 죽음을 통탄해하는 작자의 내면에는 물론 그의 끈고 철썩같은 丹心을 본받겠다는 뜨거운 의지가 담겨있다고 하겠다. 시 전체적 이미지가 무척 애통하고 비장스러워 문천상의 <正氣歌>와 같은 비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 IV. 無奈之嘆

흥행한 몽고족의 거칠 것 없는 파죽지세, 개인적 향락과 일시적 안정만을 추구했던 황제들, 이에 편승하여 사리사욕을 일삼아온 奸相들, 이러한 여러 요인으로 인해 亡國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조류하에 파묻힌 충의지사들은 온 몸으로 저항하고 울분을 토해내지만 개인적인 힘으로는 망국의 엄청난 물결에는 그저 속수무책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충의지사들은 한없는 절망감을 뼈저리게 느끼고 어쩔 수 없는 無奈之嘆을 다만 시편에 담아낼 수 밖에 없다.

鄭思肖는 당시 조국 대송이 북방 오랑캐 몽고족에 의해 풍진등화에 놓이고, 전쟁으로 인해 피로 물든 산하에 대해 초기에는 어떻게든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에 불타 있었으나 아무도 호응해주지 않는 데서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무기력감을 가슴 가득 느껴야 했다. 다음 시가 이를 잘 말해준다.

##### <寫憤>

自許志頗大, 頻歌慷慨辭. 포부 자못 크다고 자부하며 강개한 노래 자주 불렀네.

攢眉無說處, 仰面獨行時. 눈썹 찌푸리며 하소연할 곳 없어, 하늘만 바라보며 외로이 걸어갈 제,

豪傑心猶槩, 生靈命若絲. 호걸의 마음 황벽나무 같은데, 백성들의 목숨은

실과 같다.

當今欲平治, 舍我則云誰? 지금 천하를 평온히 다스리고자 하면 나 말고 그  
누구이겠는가?

어떻게든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고 조국 대승의 광복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 누구보다 강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강개하고 비분한 노래를 목청껏 불러댄다. 그러나 아무도 이에 호응하여 같이 울어주는 자가 없다. 그저 혼자서 묵묵히 분기만을 가득 품은 채 하늘이나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지 모르는 외로운 삶을 영위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잘못된 현실을 올바른 천하로 바꿔놓는 일은 나 아니면 그 누가 하겠는가 하고 외치는 소리는 맹자가 외칠 때의 시대상황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sup>19)</sup>이 아닌 그저 아무도 호응하지 않음으로 인한 무력감과 가슴 아픈 푸념일 뿐이다. 다음의 시는 이러한 그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설적이고 통속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十七礪>

我有眞黃金, 只作土價賣. 나에게 진짜 황금 있어, 다만 원가이라도 팔려고,  
陪笑徧示人, 竟無一人買. 웃음 팔면서 사방으로 보여주었으나 세상에! 한  
명도 사는 이 없네.

日暮哭歸來, 反爲衆所怪. 해 저물어 울며 돌아오니, 오히려 못 무리들 날 괴  
이 여기네.

安得明眼人, 與之語痛快. 어떻게 밝은 눈 가진 지기 얻어, 함께 통쾌하게 담  
소 나눌꼬?

『眞黃金』이라 함은 “我非辦得中興事, 一點英靈死不消(내가 조국 중흥의 대업을 이루지 못하면, 한 점 영령인들 죽어도 소멸되지 않으리.)<sup>20)</sup>”적 강렬한 중흥의지를 비유하는 말로서 사방으로 자신과 뜻을 같이 할 동지를 찾아다녔으나 “至於讀書者, 見利直下拜”(학문을 하는 자들이 오히려 私利를 보면 그저 무릎 꿇고 절이나 할 줄 아네.)<sup>21)</sup>적인 현실이 오히려 대세의 조류를 거스르고 있는

19) 《孟子·公孫丑》:“如欲平治天下, 當今之世, 舍我其誰也?”

20) <中興集甲·春日偶成五絕>之五의 시구.

작자를 비웃고 괴이하게 여긴다. 망국을 당해서도 중흥에 동참할 동지를 찾기 힘들다는 사실이 그로 하여금 無奈之嘆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고 이것은 그를 갈수록 미치광이 행세를 하도록 내몰았다.

그의 이러한 광자적 행위는 바로 굴원같은 “舉世皆濁我獨清”적 태도에서 나온 것이며, 당시 시대적 상황에 대한 냉소적 태도와 개인의 미약한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과 그에 따른 울분의 표출인데, 여기에는 그 나름대로의 고충이 숨어 있다. 그의 《心史》<大義略序> 및 <久久書>後跋에 의하면, 그는 그와 뜻을 같이 할 충의롭고도 재주가 뛰어난 인재를 찾아 中興을 도모하였는데, 충의와 재주를 갖춘 진정한 인물을 만나기는 커녕, 오히려 대부분이 표리부동한 인간들 뿐이었고, 이러한 환멸감이 그로 하여금 狂者적 행위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홍명한 몽고군이 온 국토를 유린해버린 상황에서 개인들 역시 가족이 산산이 붕괴되고 도탄속에 빠져 살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극단적 상황으로 인해 유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忠”과 “孝”에 대한 검비가 불가능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서로 극단적 모순을 가져오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그 대표적 예가 문천상이다.

문천상은 조국 남송이 멸망하기 수년 전부터 꺼져가는 남송의 명맥을 지키고 어떻게든 중흥을 도모하다가 두 번이나 원군에게 잡힘은 물론 자살까지 시도하는 등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을 비롯한 집안 식구들과의 天倫之樂은 커녕 항상 골육들과 떨어져 살아야 했고, 더구나 골육들이 전란과 병고로 하나 둘씩 이 세상을 하직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無奈之嘆에서 나오는 가슴 저미는 고통과 비애감이란 말로는 결코 형용할 수 없다. 다음 시가 그의 이러한 고통스러운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게 해준다.

<北行過淮河宿關石有感>

北征垂半年, 依依只南土. 북쪽 정벌 나선지 반년, 마음은 오로지 남쪽 땅을  
연연하네.

今晨渡淮河, 始覺非故宇. 오늘 새벽 회하를 건널 제, 비로소 옛 고향 아님을

21) <中興集乙·十三礪十首>之九의 시구.

깨달았네.

江鄉已無家, 三年一羈旅. 강 너머 고향엔 집 없어진 지 이미 오래, 지난 삼  
년 온통 나그네 여정이라.

龍翔在何方, 乃我妻子所. 용은 어느 곳에서 날고 있는가? 바로 내 아내 내  
자식 있는 곳이라네.

昔也無奈何, 忽已置念慮. 옛날엔 어쩔 수 없었으되, 홀연히 염려 그득하네.  
今行日已近, 使我淚如雨. 이제 북행할 날 가까워지니, 눈물 비오듯 흐르네.  
我爲綱常謨, 有身不得顧. 이 몸 正道 위해 도모하노니, 몸 있어도 (가족)  
돌볼 수 없도다.

妻兮莫望夫, 子兮莫望父. 부인이여! (이 못난) 지아비를 바라지 마시오, 아  
들아! (이 못난) 애비를 바라지 말아다오.

天長與地久, 此恨極千古. 하늘과 땅 장구하듯, 이 한 천고에 지극하다.

來生業緣在, 骨肉當如故. 내세에 인연이 남아있다면, 마땅이 전처럼 골육되  
어 만나기를....

문천상의 가족으로는 부친 革齋先生, 모친 曾氏夫人, 처 歐陽夫人, 아우 璧  
과 璋, 여동생 둘, 첩 顏氏와 黃氏, 그리고 자녀 여덟명이 있는데, 부친은 문천상  
나이 20세 때 과거에 응시하려 입경했을 때 동행했다가 병으로 객사했고, 空坑의  
패배 때 처 구양부인과 두 첩, 딸 柳娘 環娘, 아들 佛生이 모두 元軍에 포로가  
되었으며,<sup>22)</sup> 그 이듬해 모친마저 병으로 죽고 이어서 큰아들도 사망한다. 그 뿐  
아니다. 딸 定娘과 壽娘이 河陽의 三角에서 병사하고, 딸 監娘과 奉娘마저 전  
란 중에 사망하니, 남아있는 가족이라고는 오직 문천상 자신 뿐이다. 조국 대송은  
이민족에게 망해가고, 그러한 조국을 구원할 길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충의를 다하기 위해 복정을 떠나고, 그러나 마음만은 항상 꿈속에서도 고향과  
가족들을 그리워한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게도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전화와 병  
마로 가족들은 하나 둘 죽어가고 이를 보면서도 어쩔 수 없는 극단적 상황에 가슴  
깊이 쌓인 한이 너무나 깊고 깊다. 마지막 두 구의 내세에서 다시 골육으로 만나  
행복하게 살아보자는 치기어린 바램이 독자로 하여금 가슴아픈 연민의 정을 자아  
낸다.

22) <集杜詩>妻一百四十三 序文 참고

國破家亡한 극단적 상황에서 문천상은 조국의 중흥에 힘을 쏟아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천륜을 저버려야 했던 만큼 그의 비애감은 더욱 배가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人誰無骨肉, 恨與海俱深”(사람 중 그 누가 골육이 없으리오만, 이恨 바다만큼이나 깊고 깊도다.)식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읊은 시가 많다. 《集杜詩》에는 <哭妻詩三首>와 <二女>, <次子>, <長妹>, <長子>, <次妹>, <思弟>등의 시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 외에도 부친의 제삿날 만리 밖 머나먼 땅에서 눈물만 비오듯 흘러야 하는 비애감을 묘사한 <先太師忌日>, 모친의 죽음을 슬퍼하고 제사도 모시지 못하는 비통한 심정을 노래한 <憶大夫人>, <邳州哭母小祥>, <哭母大祥>시가 있으며, 난리 중 부인과의 이별이 사별로 변한 고통, 자녀들과의 아련한 추억, 그리고 자신의 영락한 신세를 묘사한 <六歌>(六首) 등이 있다.

남송 말기의 충의지사들이 느끼는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無奈之嘆은 주로 상술한 바와 같이 조국 중흥에 대한 개인적 무력감이나 가족조차 돌볼 수 없는 처지에서 오는 비통함에서 오는 것이지만, 특히 충절을 다하고 목숨을 버린 의인 문천상처럼 목숨을 바쳐 조국의 중흥에 참여하지 못한 회한과 자괴감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동남지역을 방랑하면서 문천상에 대한 존경과 애모의 정을 붓 끝에 실었던 謝翱이다.

<西臺哭所思>

殘年哭知己,	저무는 해에 지기의 죽음을 통곡하며,
白日下荒臺.	백주 대낮에 황량한 서대를 내려오네.
淚落吳江水,	눈물이 오강의 물에 떨어져,
隨潮到海回.	조류 따라 바다로 흘러 다시 돌아오네.
故衣猶染碧,	옛 옷자락엔 여전히 푸른 피 물들어 있거늘,
後土不憐才.	이 천지 인재를 아끼지 않는구나.
未老山中客,	아직 늙지도 않은 이 산속의 나그네,
惟應賦八哀.	그저 팔에시에 응수할 수 밖에 없노라.

謝翱는 문천상이 기병했을 때 가산을 팔아 병사를 모아 문천상에게 투신하여 자의참군의 직함을 받고 함께 원에 항거했던 동지이다. 그런 그가 군대가 패한

뒤 남방에 은거하고 있을 때 문천상이 조국에 대한 불타는 충절을 가슴에 안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고는 누구보다도 가슴이 찢기우는 깊은 아픔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매년 문천상이 죽은 祭日(제일)에 서대에 올라 그를 그리며 통곡하곤 했다. 다음의 <登西臺慟哭記>가 그의 문천상에 대한 애모의 정을 잘 드러내 준다.

매번 문득 그리움이 솟구칠 때면 언제나 꿈속에서 그 분을 뵈었다. 혹은 산수간이나 연못, 정자, 구름, 안개, 초목 등이 (공과) 이별했던 장소나 시간과 때마침 서로 연상되게 되면, 이리저리 배회하며 돌아보고는 가슴이 아파서 흐느껴 울지도 못했다. 삼년 뒤 姑蘇를 지나게 되었는데 고소는 공이 처음 府(부)를 열었던 옛 치읍이라 부처의 누대(姑蘇臺)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공을 곡했고, 또 사년 뒤 越王臺에서 공을 곡했으며 또 오년 뒤 오늘에 이르러 엄자릉의 누대에서 공을 곡했다.<sup>23)</sup>

이것이 역사상 유명한 “西臺之慟”으로서 謝翱는 엄자릉의 누대 서쪽에 문천상의 신주를 모셔놓고 곡을 하다가 슬픔에 못이겨 竹如意로 돌을 두드리며 楚歌를 지어 招魂하였는데 죽과 돌이 모두 부서졌다고 한다. 이 시의 首聯과 頷聯은 바로 이러한 비통함을 묘사하였고, 頸聯에서는 문천상이 남긴 살신성인의 정신을 안타까워 했으며, 尾聯에서는 영원히 변치 않을 푸르디 푸른 충절을 안고서 사라져간 민족의 영웅에 대해 다만 애도의 노래밖에 부를 수 없는 자괴감과 無奈之嘆을 가슴 아프게 노래하였다.

## V. 結語

조국의 멸망, 그것도 이제까지 야만적이라 멸시해온 소위 오랑캐의 압제에 놓

23) “每一動念, 卽於夢中尋之. 或山水池榭, 雲嵐草木, 與所別處及其時適相類, 則徘徊顧盼, 悲不敢泣. 又後三年, 過姑蘇. 姑蘇, 公初開府舊治也; 望夫差之臺, 而始哭公焉. 又後四年, 而哭之於越臺. 又後五年, 及今, 而哭於子陵之臺.”(謝翱, <晞髮集·登西臺慟哭記>, 文淵閣四庫全書 集部 127, 商務印書館)

인 특수한 시대적 환경은 상술한 바와 같이 문천상을 필두로 하여 정사초, 왕원량, 임경희 등 일단의 특수한 작가군과 특수한 사상정감을 낳았다. 이들의 공통적인 사상적 기초는 말할 것도 없이 공맹의 “殺身成仁”과 “捨生取義” 정신으로, 이들은 망해가는 혹은 망해버린 조국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인간힘을 쓴 충의지사였고, 다른 한편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조국의 중흥으로 인한 鬱憤之氣를 감정의 여과없이 직설적이고 감각적으로 작품에 거침없이 쏟아냈다.

國破家亡의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반드시 옛 志人烈士들처럼 충의로움을 다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면서 전인이 보여준 살신성인의 정신과 호연정기를 몸소 실천하고 충의로움과 비장미가 가득한 주옥같은 작품을 후세에 남긴 文天祥, 오랑캐의 지배에 놓인 현실 속에서 자손을 남기지 않기 위해 평생을 홀홀단신으로 외롭게 살면서 주로 직설적이고 감각적인 언어의 사용을 통해 고통과 울분을 마구 분출하며, 죽어서 원혼이 되어서라도 결국은 조국을 되찾고야 말겠다고 맹세하면서 이 맹세가 혹여나 약화되거나 소멸되지 않도록 의기를 갈고 또 갈았던 鄭思肖, 남송의 수도 臨安의 함락으로부터 어린 황제의 항복 장면, 북으로 끌려가면서 겪는 비애감과 처량감, 고국산천 도처에 남겨진 전장의 상흔 등을 세세히 묘사한 많은 시편을 남김으로서 남송의 亡國史란 찬사를 받은 汪元量, 백절불굴의 절개의 화신인 蘇武와 오랑캐의 부귀영화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충절을 다한 文天祥 등을 통하여 不事二君의 충절을 크게 선양한 林景熙 등 이들의 시에는 溫柔敦厚하고 含蓄蘊藉한 전통적 시적 미학은 부족하지만 이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무한한 동정심을 불러 일으키고 가슴을 진탕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의 작품보다 강렬하다. 이들이 남긴 이러한 悲壯美가 가득 담긴 시편은 인류가 남긴 많은 전형적인 정서 중에 더없이 아름다운 또 하나의 전형적인 예술미학을 창조해냈다고 하겠다.



❖ 참고 문헌

- 楊家駱主編《新校本宋史》，台北鼎文書局  
文天祥著《文文山全集》，台北世界書局，1979.  
鄭思肖著《鐵函心史》，台北世界書局，1975.  
汪元量著《水雲集》，文淵閣四庫全書本，台北商務印書館。  
汪元量著《湖山類稿》，文淵閣四庫全書本，台北商務印書館。  
林景熙著《霽山文集》五卷，文淵閣四庫全書本，台北商務印書館。  
王雲五主持《四庫全書總目提要》，台北商務印書館。  
程敏政《宋遺民錄》，知不足齋叢書。  
丁傳靖《宋人軼事彙編》，台北商務印書館。  
朱明玥《南宋遺民詩人詩作研究》，上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2007。  
陸瓊《汪元量生平及交遊研究》，華東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2005。  
楊麗圭撰《鄭思肖研究及其詩箋注》，台北文化大學中文研究所碩士論文 1977。  
王偉勇撰《南宋遺民詞初探》，台北東吳大學中文研究所碩士論文 1979。  
周全撰《宋遺民志節與文學之研究》，台北東吳大學中文研究所博士論文 1983。  
趙鐵寒著《鄭思肖及其詩文集-心史》，幼獅月刊五卷二期。  
龐景隆著《文文山及其詩》，中央月刊二卷十期。  
林葱著《宋遺民汪元量逸事》，浙江月刊九卷一期。

❖ ABSTRACT

## A Study on the Tragic Aesthetics of Drifting Poets in the Last Period of the Song-Dynasty

RO, Sang Keun

Literature is the product of a certain era and particular writers and their thoughts and affects are formed due to particular environments. The end of South Song Dynasty was a particular historical period marked by the destructions of the nation and families. In such a historical context, there was a group of writers like Tian-Xiang Wen(文天祥), who held extreme anger and anxiety regarding the destructive social atmosphere. These writers espoused Kongzi's and Mengzi's thoughts such as "sacrificing oneself to preserve one's integrity" and "seeking justice in spite of losing one's life" and relentlessly produced poems which reflect their pathos on the destruction of the country and personal resentments. Accordingly, this paper analyzed and examined representative works of these migrant poets at the end of the South Song Dynasty into three different categories. These works include the sensitive use of language and the use of direct descriptions in order to express their loyal and in-depth spirits of justice and tragic aesthetics of extreme anger and anxiety. In doing so, these authors became not only role models to those intellectuals and patriots by providing classical literary prototypes but also made readers of their poems feel endless sense of sorrow and strong impression.

---

**Key Words**

Migrant Poets in the South Song Dynasty, Tragic Aesthetics, Tian-Xiang

Wen(文天祥)

논문접수일: 2008. 4. 19.

심사완료일: 2008. 5. 21.

게재확정일: 2008. 6. 13.